

“마음으로 시를 씁요”

인공호흡기 의존지체장애 1급 홍성모씨
글로 세상과 소통하며 희망의 메시지 전달

추운 겨울 언 몸을 녹여주는 난로는 아니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당신/ 내 마음 사랑으로 꽉 찼지만/ 항상 모자라다며 더 큰 사랑 내라는 당신/ 삶이란 명예를 혼자 짊어져 화생과 헌신이라는/ 세월의 흔적으로 예쁘지는 않지만/ 나의 아픈 배를 끌어주는 가장 부드러운 손을 가진 당신/ 오랜 병수발로 통통 부은 다리와 과감치 다 뺏겨린 몸이지만/ 오늘도 내 옛된 미소 하나로 고단한 하루를 마감하는 당신/ 아무리 목청껏 부르고 불러봐도 다시 부르고 싶은 당신/ 당신은 바로 어머니이십니다.

지체장애 1급인 홍성모씨(33)가 심혈을 기울여 쓴 ‘어머니’란 제목의 시(詩)이다. 그는 어머니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중증 전신마비 장애인이다.

그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친 건 2003년 8월.

군 전역 후 대학 복학을 앞두고 학비를 마련할 요량으로 시작했던 아르바이트 일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

스물네살 때 건축 공사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던 중 지붕에서 떨어져 경추 1·2번 손상을 입었다. 옆친대 옆친

격으로 황경막(폐를 감싸고 있는 근육)까지 다쳤다.

병원에선 “너무 크게 다쳐 가망이 없다”고 했다. 그래도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5년 넘게 중환자실에서 ‘사투’를 벌였다. 수술 도중 심장이 멎는 등 죽을 고비도 두 번이나 넘겼다.

“죽음의 문턱에 섰을 때 너무 고통스럽고 두려웠어요. 무엇보다 아쉬움이 컸어요. 그 때부터 정말 살고 싶어지더군요.”

다행히 목숨은 부지했으나 사고 후유증은 컸다. 팔다리는 물론이고 손가락조차 움직일 수 없었다. 겨우 고개만 움직일 수 있을 뿐이었다. 몸을 전혀 가눌 수 없는 탓에 24시간 침대에 누워 생활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스스로 숨도 쉴 수 없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해야 했다. 생명줄이나 다름없는 호흡기를 달기 위해 목에 구멍을 내 관을 삽입한 터라 목소리마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믿기지 않는 현실에 그는 또 다시 절망과 좌절감에 빠졌다.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까지 생겼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자괴감에 빠져 있던 그가 다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때문이다. 온갖 모진 고생을 다 겪은 어머니를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앞섰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에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다.

홍씨의 어머니 신숙희씨(62)는 젊은 시절 심장병을 앓던 남편이 세상을 등지기 전까지 10년 넘게 병수발을 들면서 모든 가정살림을 도맡아 해 왔다. 이제는 남은 평생을 자식의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기구한 운명이다.

그는 제주시 노형동에서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정이다.

수입이라곤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이 전부다. 1년에 한번 인공호흡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구입비만 1000만원이 훌쩍 넘는다. 생활비를 대기도 빠듯한 데 이런 큰 돈이 있을리 없다.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는 이유다.

홍씨는 2009년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특수 제작된 컴퓨터를 이용해서다. 안경에

부착된 특수마우스를 이용, 고개를 힘겹게 상하, 좌우로 움직이며 모니터에 나온 자판의 자음과 모음을 하나 하나씩 짚고 눌러 글을 쓴다. 한 문장을 완성하려면 남들보다 몇 십배, 몇 백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詩)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던 그가 ‘시 쓰기’에 처음 도전한 것은 지난해 9월.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길웅 전 제주동중 교장의 지도편달 아래 지금까지 20여편의 자작시를 완성했다.

그가 쓴 시와 자신의 트위터(@ham0456)에 올린 글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인생을 쉽게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싶다는 게 그의 소박한 바람이다.

“제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글’ 뿐입니다. 이 글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어요.”

그는 오늘도 가슴으로 글을 쓴다.

장애인 일자리 올 1338개 창출

제주도는 올해 38억6000만원을 투입, 1338명의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일자리 분야와 고용인원을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 650명,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사업 630명, 행정도우미 54명, 시각장애인 안내사 파견 4명 등이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유형은 주차단속 보조, 환경도우미, 동료 상담 등이며, 이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된다. 일자리 참가자에게는 1인당 월 25만90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행정시와 읍·면사무소, 농주민센터에 배치돼 복지행정 업무를 돕게 된다. 보수는 월 87만원이다.

경로당에 파견되는 시각장애인 안내사에게는 월 100만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업체에는 장려금을 지원한다.

지면소개

- 종합 2·3면
제주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개최
시설 탐방·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 사회복지소식 4·5면
국내 최고령연극단 공연 '감동 푸드뱅크·마켓 식품기부 증가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사회복지협의회 25년사편찬(생발자취)
- 기획 8면
기획 '이웃사랑 자원봉사'



보듬 새해 기쁨이 반갑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제주은행을 사랑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제주은행
 www.e-jejubank.com

제주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개최

사회복지협의회 25년사 편찬 기념식도 열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동한)는 지난달 27일 사회복지협의회 회관 2층 삼다수홀에서 '임진년(壬辰年)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 및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5년사 편찬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근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양성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주도의회 의원, 사회복지시설·단체장 등 200여명이 참석해 제주지역 사회복지 발전을 기원하고 사회복지인의 화합과 결속을 도모했다.

행사는 국민의례, 사회복지협의회 연혁소개, 25주년 축시 낭송, 유공자 표창, 축하 시루떡 커팅, 축배, 오찬 등의 순으

로 진행됐다.

이동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신년인사회는 사회복지협의회가 그동안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를 담은 25년사 편찬 기념식과 함께 열려 더욱 의미가 크다”며 “흑룡의 해를 맞아 관용과 배려의 자세로 사회복지인들이 앞장서서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인사말에서 “소외계층을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라며 “임기 내에 제주도의 사회복지 예산을 전체 예산의 25%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협의회의 발자취를 담은 25년사 편찬 기념식을 통해 협의회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되짚어보고, 도내 사회복지계의 구심체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368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25년사 책자에는 협의회의 주요 연혁과 자원봉사회 현황은 물론 교육훈련 및 조사·연구, 자원봉사자 육성, 식품나눔사업 등 주요 추진 사업과 찾아가는 초등학교 복지교육 등 특화사업 내용이 실렸다.

이와 함께 회의록을 통해 25년간의 역사를 더듬어보고 도내 사회복지시설장과 사무국장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협의회 위상과 역할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사회복지 전문가 좌담회 내용도 수록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작은 세상봉사단 소속 원석철씨가 자원봉사에 헌신한 공로로 '제주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에 따른 기념패를 수상하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강철수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장과 손병오 대림산업주식회사 과장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패를 받았다.

올해 사회복지 10대 과제 추진

道 출산율제고·돌봄서비스강화 등

제주도는 올해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촘촘한 복지', '행복한 출산', '건강한 도민 실천'으로 정하고 10대 실천과제를 선정, 추진키로 했다.

제주도는 우선 출산율 2.0 제주플랜 실현을 위해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 12세 이하 국가필수 예방접종 전면 무료 시행, 서귀포시 공공산후 조리원 설치, 어린이집 환경개선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출산장려금 지원 확대 등 5대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또 도민 체감형 복지전달 체계를 구축, 균형 있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희망플러스 운동, 읍면동 복지협의체 구성 등 기부와 나눔의 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하고 혼자 살거나 100세 이상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해 주자 등 도서지역에 다문화학교를 운

영할 예정이다.

이달 중 여성거버넌스 창립 포럼을 개최하는 한편 30개의 중점관리위원회의 여성참여율을 평균 32%에서 40% 이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조선시대에 사재를 털어 굶주림에 허덕이는 백성을 구한 제주의 여성 상인 김만덕(1739~1812년)의 나눔과 도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김만덕 선양사업을 전국 차원의 행사로 추진하고 김만덕 기념관도 건립할 계획이다.

산남지역 공공의료 인프라도 확충된다. 300병상 규모의 서귀포의료원을 신축하는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추진돼 2003년 완공될 예정이다. 제주재활전문센터도 2003년 개원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 밖에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중증의상센터를 제주에 유치하고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지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며 6개소의 심야약국이 운영되는 등 응급의료 안전망이 확충된다.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올해부터 저소득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용자 비율도 낮아진다.

제주도에 따르면 기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 가구인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지원 대상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로 확대된다.

연 이율도 2.5%에서 1%로 낮춰 저소득층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창업자본의 경우 자활공동체

와 자활근로사업단은 최고 1억원, 개인은 최고 2000만원까지 용자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은 최고 3000만원까지 용자가 가능하다.

1000만원 이하의 용자금은 무담보·무보증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연 이율도 대폭 낮췄다”고 말했다.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역 거점 센터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 센터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센터 인력이 증원돼 상담 기능이 강화되고 한국어 교육시간도 확대된다.

언어영재교실과 중도에 입국한 자녀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육과 편입학 안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도서지역 다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과 다문화 가정 온라인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주생활 바로알기 콘텐츠도 제공한다.

제주도는 앞으로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장애인보조공학 서비스센터 4월 개소

제주지역에 전통휠체어 등 장애인이나 고령자용 보조기구를 대여하고 수리해 주는 전문 서비스센터가 오는 4월 문을 연다.

제주도는 제주시 월평동에 위치한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에 2억원을 들여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를 설립, 오는 4월 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삼다(대표 양예홍)가 위탁 운영하는 이 센터는 장애인 보조기구 대여와 수리는 물론 보조기구 사용자 실태 및 사례조사 연구사업을 벌인다.

현장에서 보조기구를 직접 사용하며 체험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센터가 개소하면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전문적인 보조기구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장애인종합복지관 전국 최우수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이 전국 최우수 장애인복지관에 선정됐다.

제주도장애인복지관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의 152개 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년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직원의 전문성, 시설 환경 및 프로그램, 서비스의 질, 이용자 편의성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 시설에 선정됐다.

이로써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1999년부터 5회 연속 전국 최우수 장애인복지관으로 선정됐다.

보건복지부는 모든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1999년부터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윤보철 관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속에서 도민, 장애인과 함께 하는 장애인복지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회복지·보건정책 워크숍 개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국장 강승수)은 지난달 26일 제주한라산연구소 2층 회의실에서 복지 관련 전문가와 도민,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보건정책 공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제주도의 올해 사회복지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 관계자

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이날 워크숍에서 올해 사회복지 목표인 '촘촘한 복지, 행복한 출산, 건강한 도민'을 실현하기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설명하고 사회복지·보건 발전을 위한 전문가와 도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또 대중가요 '고향역' 등을 작곡한 임종수씨를 초청, '소통과 공무원의 자세'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앞으로 정책 수립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따뜻하고 희망을 주는 제주복지 공동체를 구현해 나갈 방침이다.



사회복지협의회 2011년 1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730,000	730,000
난치병환아후원	70,000	1,000,000
자원봉사후원	4,590,000	4,590,000
복지사업후원	1,090,000	1,175,000
푸드마켓후원	6,148,050	5,801,42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시설탐방

(51)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피해아동 심리치료 등

아동 보호·권리 증진에 앞장

지난 1989년 채택된 유엔(UN) 아동권리협약은 생존·보호·발달·참여권 등 아동의 권리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190여개국이 비준해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인권협약으로 꼽힌다. 여기서 아동이란 18살 미만으로 정의된다. 그러니까 18살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협약에 명시된 권리를 가진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규정한 아동권리협약 내용 가운데 보호권에 중점을 두고 있다. 2006년 10월 문을 연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난달 19일 찾았다.



‘1577-1391’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번호다. 이웃에서 학대받는 아동을 발견했을 때 이 전화로 신고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을 긴급보호한 뒤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제공한다.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됐지만 정작 이 전화번호를 아는 사람은 드물다. 지역사회와의 관심과 홍보가 부족한 탓이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지난해 펴낸 ‘함께오름’ 소식지에 실린 ‘2011년 서귀포지역 아동학대 현황’ 통계 자료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아동학대의 현주소를 그대로 말해준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피해 아동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폐해를 초래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대부분은 가정에서 발생하며, 가해자의

79.2%는 친부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서귀포시지역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건수는 77건으로 2010년 59건에 비해 31.0% 증가했다.

아동학대 가해자를 보면 부모가 61건(79.2%)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으며, 친인척 6건, 기타 10건 등의 순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두 가지 이상의 중복 학대가 42건(54.5%)으로 가장 많았고, 방임학대가 19건(24.6%), 정서학대가 15건(19.4%)로 그 뒤를 이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학대 현황을 파악해 가해자 상담 및 교육, 가해자 접근 금지, 지속관찰, 고소·고발한 뒤 원가정으로 돌려보내거나 친인척 보호, 일시보호 등의 조치를 취했다.

아동 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은 아동을 보호하는 전문 기관인 셈이다.

이 기관은 상담실과 심리검사실, 치료실 등을 갖추고 아동학대 신고 접수, 현장조사, 조치결정(응급보호 등), 상담·심리검사 및 치료·교육·학대가정 사후 관리 등의 서비스제공 업무를 맡고 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그룹홈인 ‘아이오름’도 운영하고 있다.

또 피해아동 및 가해자,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캠프와 가족치료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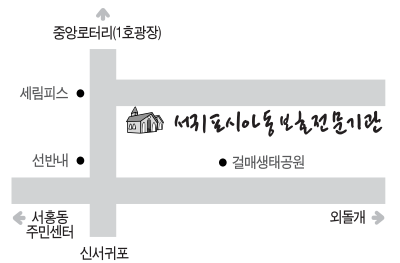
‘아동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인 4월27일에는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해 아동학대 예방사업 우수사례 및 수기 공모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과 2009년에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평가대회에서 소규모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한용훈 총괄팀장은 “가정 내 학대의 경우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 모두 적절한 상담과 치료를 거쳐 정상화된 가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아동학대 관련자들이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상담·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문의=732-1391~2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영유아 용품 대여바우처 시행

도, 다음달부터 본격 추진

제주도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바우처)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와 ‘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대여)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자체가 현장에서 발견한 사회서비스 수요를 중앙 정부가 선정해 지원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서비스 대상은 주로 노인과 아동, 장애인 등이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와 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올해 신규사업 공모에서 선정됐다.

노인 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는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20%(4인 가족 기준 526만

5000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체력 검사 등을 거쳐 주 3회 맞춤형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액은 1인당 월 6만원이며, 본인부담금은 5000원~1만원이다.

출산 및 영유아 용품 렌탈 서비스는 월평균 소득 100%(4인 가족 기준 438만7000원) 이하, 0~만5세 아동을 대상으로 유모차, 교재 등 영유아 용품을 대여해 주는 사업이다. 1인당 월 3만원이 지원되며, 본인부담금은 3000~5000원이다.

제주도는 사업 대상자인 노인과 아동 800명에게 1년간 총 4500만원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매월 1월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제주도는 오는 10일까지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남녀평등 촉진사업, 다문화가정 자녀 사회 적응 사업 등 기획 분야와 성폭력·성매매 예방 등 여성권익사업, 녹색생활실천사업, 건강가정 육성 및 저출산대책 사업, 여성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등 자유 분야 등 2개 분야로 나뉘어 이뤄진다.

지원 대상은 여성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도내 여성단체 또는 비영리단체이다.

공모에 참가하려면 신청서와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한 후 제주도 여성정책과로 접수하면 된다.

취약계층 아동복지서비스 확대

제주도는 올해 지역사회와 연계한 아동복지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위탁가정이나 공동생활가정에 우선 배치해 가정보호를 강화하고 자립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기존 시설아동에서 공동생활가정과 가정위탁까지 확대, 운영한다.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 자녀의 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토요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끼니당 종전 3000원에서 35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임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10만원이던 양육수당을 월 15만원을 인상한다.

디딤씨앗통장 12세아동가입자 모집

제주도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12세 아동(2000년생)을 대상으로 디딤씨앗통장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디딤씨앗통장은 소년소녀가장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아동 등이 매월 통장에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 3만원 범위 내에서 같은 금액을 지원하는 사

업이다. 어린이들의 저축의지와 자립심을 길러주고, 적립금을 주며, 취업, 학업 등 자립에 쓰게 하자는 취지다.

신규 가입자 모집기간은 오는 3일까지이며, 해당 아동이나 보호자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내 최고령 연극단 공연에 감동”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실버스타연극단’
평균 나이 78.8세..무대에서 열연 ‘눈길’

“연세가 지긋하신 어르신들의 연기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국내 최고령 연극단의 공연을 감상한 이들은 나이도 잇은 채 무대에서 열연을 펼친 어르신들의 연기에 감탄사를 쏟아냈다.

제주시 구좌읍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의 ‘실버스타 연극단’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구좌읍지역 노인 10명으로 구성된 연극단 단원들의 평균 나이는 78.8세. 우리나라 최고령 연극단이다.

복지관이 ‘실버스타 연극단’을 만들게 된 것은 지난해 3월, 농촌지역 특성상 문화예술 접할 기회가 적고 경로당에서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주고자 연극단을 만들게 됐다.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발된 연극단 단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차례 2시간씩 맹연습을 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연습 초기에는 대본을 외워도 금방 잊어버리고 손짓과 발짓도 영 어색하기만 했다. 심지어 한글을 모르는 단원도 일부 있었다.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박정민 팀장은 “어르신들이 대사를 외웠지만 무대 위에서 동선을 잊어버리기 일쑤여서 결국 바닥에 테이프를 부치는 방법으로 일일이 동선을 확인시켜 줬다”고 연습 당시를 회상했다.

4개의 장면으로 이뤄진 연극의 1개 장면을 완성하는 데만 45일 정도가 걸렸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연기에



대한 열정만큼은 전문 배우 못지 않았다.

이런 피땀 어린 노력 끝에 지난해 10월 28일 첫 공연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후 지역 내 요양원과 경로당 등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무료 공연을 펼쳤다. 매 공연 때마다 객석은 눈물바다가 됐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6일 제주도문화회관 소극장에서 한 해의 마지막 피날레 공연을 장식했다.

공연 제목은 ‘미(美)인(安), 해(海) - 아름답고 편안한 바다’. 17년만에 집에 나타나

집문서를 갖고 달아난 아들이 새벽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뒤늦게 후회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공연 수익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했다. 이달 3일에는 동녘도서관에서 앵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연극단 단원인 이경식(78)은 “처음엔 우리 같이 나이든 사람들도 연극을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지만 지금은 재미도 있고 보람도 크다”며 “요즘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 청소년 수영교실 운영

사회복지법인 유진재활센터 주·단기시설(원장 최은미)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적·자폐성 장애 청소년의 과잉행동 문제 해소를 위한 수영교실을 연다.

‘해엄 치명 놀게’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영교실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에 운영된다.

유진재활센터는 공동모금회 배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처음으로 수영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방임아동·위기청소년 지원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관장 송옥희)은 방임 아동과 위기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

‘징검다리’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아동과 청소년의 생활환경 전반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례 관리, 학습, 자기계발, 심리·정서계발, 가족기능 강화, 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은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지역 내 아동센터와 학원, 보건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20개소와 협력해 아동의 학습권과 보호권,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초록우산 감동스토리 발굴

제주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달 1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2012년 상반기 직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초록우산 감동스토리’는 우리가 주인공’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워크숍에서 정원철 관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 해 감동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은 물론 도민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스토리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소/식/마/당

과학고 학생, 현미경 기증



제일지역아동센터(원장 박영식)는 제주과학고에 다니는 김유진, 김지현 학생이 지난해 10월 충북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BIO산업실험경연대회에서 입상해 받은 현미경을 센터에 기증했다고 밝혔다. 센터에서 학습 자원봉사를 해온 두 학생은 센터 아동들이 현미경을 통해 과학에 흥미를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양돈농협, 장애인요양원에 성금



제주양돈농협(조합장 이창립)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중증 장애인 거주시설인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원)에 이웃사랑 성금 200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이번에 기탁한 성금은 요양원의 낡은 시설과 장비 교체 비용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제장복, 저소득층에 제수용품전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LG U+ (지점장 원경환)와 연계해 지난달 18일 제주시 이도1동주민센터에서 저소득 가정 100곳에 20만원 상당의 설맞이 제수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대기업과 관공서, 복지관, 재래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 진행했다.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 작은 음악회



창원시청소년교향악단은 지난달 8일 창암재활원(원장 박광수)을 찾아 중증 장애로 인해 문화생활의 기회를 접하기 어려운 입소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창암재활원은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 요양시설이다.

순복음복지관, 아이스링크 체험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겨울 방학을 맞아 지난달 13일 복지관 인근지역 아동 40여명을 대상으로 탐동아이스링크에서 아이스링크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은 겨울 방학 동안 도예, 방송댄스, 음악출렁기 등 지역아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혜정원, 겨울 체험프로그램 운영



혜정원 아가의 집(원장 박두현)은 지난달 10일과 19일 두 차례에 걸쳐 눈썰매와 연쇄 체험 등 겨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아가의 집 원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반복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모처럼 즐거움을 만끽했다.

푸드뱅크·마켓 식품기부 증가

기부자매년 늘어...작년 13억원 어치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식품을 기부하는 사람과 기탁품 액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도내에 설치된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접수된 기부식품을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지난 2008년 4억7000여만원, 2009년 6억여원, 2010년 9억6000여만원, 지난해 13억2000여만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기탁지도 2009년 93명에서 2010년 139명, 지난해에는 190명으로 늘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은 지난해 접수된 기부식품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저소득 가정, 결식아동 등 소외계층에 나눠줬다. 기탁품은 가공식품과 농·수·축산물, 조리음식 등 식품류와 치약과 비누 등 생필품 등이며, 기탁자는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푸드뱅크는 개인이나 기업체, 단체로부터 기부받은 식품을 저소득층에

게 직접 전달하는 곳이다. 푸드마켓은 저소득층이 직접 상설 매장을 방문해 원하는 식품을 선택해 가져가는 식품 기부 시설이다.

제주시 일도2동 옛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 1층에 위치한 '사랑나눔 푸드마켓'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월 1회, 최대 3가지 품목의 물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은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주사회복지협의회는 기부자들의 자그마한 정성이 어려운 이웃에게는 큰 희망이 되는 만큼 후원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방침이다.



장애인식개선 전문강사 양성교육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달 18~20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준)전문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 인권, 장애인해교육, 장애인관련법, 장애인 사회참여 등 장애 이해에 대한 기본교육과 장애 인식 강사로서 갖춰야 할 자

질과 덕목에 초점을 맞췄다.

교육 강사로 나선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김경미 소장은 "장애인들을 주체적 인격체로 받아들이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생계와 취업 문제를 고려할 때 취업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다양한 구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 이수자는 학교, 지자체, 교육기관 등에 파견돼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활동하게 된다.



인터넷꽃배달쇼핑몰

일배움터 '푸른세상' 오픈

지적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일배움터'가 인터넷 꽃배달 쇼핑몰 '푸른세상'(<http://ilbaeumteo.co.kr>)을 2월 1일 정식 오픈한다.

일배움터는 중증 장애인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꽃배달 서비스를 통해 '장애'라는 편견을 넘어 누구나 함께 참여하고 매출 향상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

중학생 '경제교육'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소장 강철남)은 지난달 10일 도내 중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프로그램인 경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경제교육은 동영상 상영을 통한 강의와 동문재래시장 등 지역상권 체험 등으로 진행됐다.

교육 참가자들은 계획된 금액에 맞춰 물건을 사고 용돈기입장을 작성해 합리적인 소비 생활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학교폭력 피해 초등생 절반 '그냥 참는다'

47% '도움요청 않아'

학교폭력 예방교육 절실

초등학생 4명 중 1명꼴로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지만 피해 학생 중 절반 가량은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까지 서울시내 5개 초등학교 4~6학년생 137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학생의 25%가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폭력을 당하고 도움을 요청했다고 답한 학생은 53%, 요청하지 않은 학생은 47%로, 절반에 가까운 학생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고도 침묵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일이 커질 것 같

아서'(28%),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19%), '대단치 않은 일이라 생각해서'(16%), '보복당할 것 같아서'(1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도움을 요청한 대상은 부모(45%), 교사(28%), 친구(21%) 순이었으며 학교폭력 전문기관이나 청소년 상담소에 도움을 요청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교폭력과 아동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과 교사, 부모를 대상으로 통합적 예방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며 "초등교육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을 위한 교육 당국과 지역사회 등의 관심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저소득 조손가정 주거환경 개선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지난달 15일 저소득 조손가정을 찾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펼쳤다.

이 사업에는 '더브하우스 반디' 봉사단 단원들이 참여해 도배를 하고 장판을 교체해 줬다.

또 집안 곳곳을 수리하고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

주거환경 개선 봉사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은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엄마와 함께 도배지도 자르고 풀칠도 했다"며 "집 안이 말끔하게 단장돼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앞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취약계층 1가구를 선정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제주시교육지원청, 푸드뱅크에 배추 기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희)은 지난달 10일 교육농장 에듀팜에서 수확한 배추 1200

포기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하는 광역푸드뱅크에 기부했다.

지난해 9월 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직접 모종을 심고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이 배추는 푸드뱅크를 통해 저소득층 노인과 사회복지시설, 무료급식소 등에 전달됐다.

학대피해 노인 쉼터 프로그램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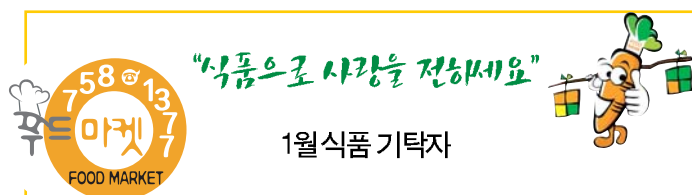


제주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과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피해학대 어르신을 대상으로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쉼터 프로그램은 호일로 표현하기, 물고기·인형 만들기, 한지공예 등 미술 체험을 통한 심리상담 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앞으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 치료를 위해 다양한 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1월식품 기탁자

▲(주)금강축산유통=육류 468.5kg ▲서문식품=두부 372모, 콩나물 160봉 ▲김치원=김치 60kg ▲(주)삼다유통=삼다수2L 1,800병 ▲뉴월드마트서라점=떡국떡 277kg ▲JBS잘잘특공대=라면3박스, 빵 ▲이어도지역자활센터=상추 36kg ▲아산재단=쌀 200kg ▲신농영농조합=무말랭이40kg ▲일도2동새마을부녀회=콩기름0.9L 52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쌀1,340kg ▲이든이네=멸치3kg ▲익명기부자=세탁세제1, 라면(5입)1봉지, 찹쌀1, 치약1

칼럼

활기찬 노년



고 보 선

제주산업정보대학 고보선 교수

최근 노인복지의 주요 관심 분야 중 하나는 액티브 에이징(active aging) 즉, 활기찬 노년이다.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고령자회의에서는 액티브 에이징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었다.

활기찬 노년이란 생산적 노년과 성공적 노년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노년생활의 주체인 노인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하고 건강을 오래 유지시킬 수 있는 노인 스스로의 노력과 사회적 환경을 만들며 안전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노년기 삶의 최적 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은 육체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예방중심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노인이 살기에 편

안한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여 노인들이 활동하고 생활하기 익숙한 환경을 고려한 고령친화도시를 구축하는 것이며, 정서적으로는 노인이 홀대나 학대받는 사회가 아닌 노인에게 사회적 효를 실천하고 세대가 함께 하는 사회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도시 구축

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1세기 건강한 사회환경을 만들어 가기 위한 활기찬 노년 생활은 노인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가족, 그리고 사회적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적극적인 노년 생활을 위하여 노인 스스로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과거와는 달리 노년기는 수동적이거나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에 통합할 수 있도록 노인 스스로 적극적으로 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 관계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가족, 친구 및 이웃 등과 적극적인 태도로 관계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적극적인 노년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건강하지 못할 때에도

적극적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노인 스스로의 의식 전환과 더불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공유하고자 하는 노력은 적극적인 노년 생활을 만들어 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노년기의 자원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사회성을 상실하지 않고 그들의 자존감을 유지시켜

노인·가족·사회적 노력 필요

나갈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사회에서는 노인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들이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노년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교육 등 다양한 활동에 노인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모든 세대가 노년기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개인 및 사회적 자원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통합의 기회를 만들어 노년기의 사회적 자본이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사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시론

낮은성장제일주의, 이제 버리기를



고 현 수

사회복지미래연구회장

한국에서 ‘행복’은 경제성장을 뜻하며, 경제성장이 목적이 되어 왔다. ‘자유시장경제’라고 포장되어 있는 ‘경제성장’ 이념은 퇴행적으로 재벌간 ‘부(富)’를 축적하는 연합체를 형성시켜 왔고 노동자의 인권, 서민의 주거권, 균형과 형평이라는 인간적 가치를 무시하거나 철저히 희생시켜 왔다. 민주정부가 수립된 이후 지난 15여년 간 빠른 인권회복과 균형(발전)노력, 부의 재분배 노력도 적지 않았다고 하겠다.

하지만 경제성장이라는 가치는 필자를 포함한 세대와 그 이전의 세대에게는 정치적 가치이자 국가이념으로 지배되어 왔고 삼성과 같은 재벌의 세금포탈, 비자금 조성,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같은 잘못은 소소한 것으로 용서되어야 마땅한 것이었다.

왜냐면 이들은 경제주체이며 동력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이 국부이고, 서민의 주머니에도 돈이 내려가는 낙수효과로 서민 행복도 어느 정도 가능했기에 그렇다.

그런데 지금 ‘금과옥조’와 같았던 성장제일주의 이념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 같다. 서민들의 ‘장사’ 영역이던 골목의 빵집, 커피숍, 치킨집마저 재벌과 그 2세들의 취미수단으로 전락되고 있음에 비난이 쏟아지자 정치권에서 이른바 ‘경제민주화’라는 칼을 빼든 것이다. 충격은 이 가치를 선점한 진보적 정당뿐만 아니라 재벌을 옹호하는 보수정당까지 정강정책에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복지’가치를 내들었다.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던 여당마저 이에 준하는 복지정책을 중요한 정강정책으로 삼고 있음을 보면, 1년도 안 되는 사이 격세지감을 느낀다. 각설하고 통계를 보면 국민 절대다수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 왜 고도경제성장을 이루고, OECD 국가 중 경제위기를 가장 빨리 극복한 나라임에도 국민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마이클 이가일은 국가적 행복은 소득수준의 높낮이보다 소득간 평등이 더 강력한 지표라고 주장한다.

그 이유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을 소득의 절대금액이 아니라 상대적 수준에 따라 판단하며, 부유한 나라들에서조차 불평등은 그 자체로 불건강한 사태를 더 많이 동반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그의 연구에서는 평등을 지향한 사회일수록 행복한 사회라고 하고 있다. 행복감을 높여주는 요인은 무엇인가. ‘포브스’지의 100인의 갑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면 돈이 행복의 주된 원천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행복의 원천으로 ‘자존감’과 ‘자기실현’이라는 응답 비중이 제일 높았다. 자존감과 자기실현은 교육, 경제, 사회활동 전반에 그 균등한 기회와 참여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부를 독점하는 경제체제에서는 부의 대물림이 지속되며 부의 편중도가 증된다. 사회구성원의 경제적 자기실현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다수의 빈곤자를 양산시키고 확대시킨다.

‘경제민주화’는 구호가 아닌 긴급히 수행되어야 할 정책의 우선순위이다. 동시에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고 결과적 평등을 모색하는 ‘보편적 복지’는 인재와 천재를 피할 수 있는 우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골목상권까지 손을 뻗치려는 재벌과 2세들의 정신세계에 관심 없다. 서민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경제민주화’와 ‘(보편적)복지’를 정치권에서 우선 정책으로 삼겠다고 했으니 기대해 볼 일이다.

기고

나의 기부문화, 첫발을 떼다



최원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자원산업과

나는 정말 평소에 꼭 소원하던 일을 금년엔 꼭 실천하리라 다짐하며 그 약속을 지키기라도 하듯 이렇게 지면을 빌려 선포하고자 한다.

그 일이 무엇이나고 하면 바로 ‘국수봉사’다. 독자들께서는 국수봉사를 한다고 하면 너나나나 다하는 국수봉사를 가지고 웬 호들갑을 떠느냐고 핀잔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사연은 이렇다. 나는 평소 밀가루 음식을 좋아 해서 시내에 있는 국수집을 즐겨 찾곤 한다. 들리는 식당마다 다 저마다의 음식 맛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아내가 해주는 국수 맛이 아무래도 최고인 것 같다. 아내가 만드는 국수는 좀 독특하다. 진하게 우려낸 멸치국물에다가 갓 삶아낸 돼지고기와 기타 야채들로 매콤하게 볶은 양념을 얹어서 먹는 국수 맛은 가히 탄성을 지르게 한다.

이러한 맛을 나 혼자만 맛 보는게 아쉬워서 아내에게 농담반진담반으로 국수집을 한번 열어 서 장사를 한번 해보라고 권한 바 있다. 그렇게 몇 번 이야기를 하다가 실현에 옮기지는 못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늘 그 훌륭한 국수 실력(?)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이나 경로당 같은 데를 찾아가서 국수봉사를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다.

그 실행을 2012년도에 꼭 하리라 나 자신과의 약속을 하면서 흔쾌히 동조해주는 아내와의 다짐도 받아두었다.

내가 이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게 된 이면에는 옛날의 어려웠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통

해서 내 이웃이 좀더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최근 기업, 클럽, 개인단체 등을 통해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가진 자들의 욕심 때문이라고 말을 하면 틀린 말일까? 가진 자들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일삼고 노력하는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약자들은 상대적 빈곤감에서 헤어나지 못해 그 욕구를 사회에 대한 반감으로 표출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 또는 우리 도가 좀더 건강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선 기부문화가 확산되면 일면 치유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기부문화에 작지만 내가 국수봉사를 통해서 첫발을 떼고자 한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여러분에게도 각자의 환경에 맞는 기부문화를 제안하면서 나의 작은 미래 행위에 격려가 있으면 좋겠다.

■ 제주사회복지협의회 25년사 편찬 - (상)발자취

사회복지 황무지 개척한 25년 역사

‘법정단체인 제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1월 27일 협의회의 발자취를 담은 25년사 책자를 발간했다. 368페이지 분량으로 제작된 이 책자에는 협의회의 창립 과정부터 제주지역 사회복지계의 구심체로서 자리매김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4반세기의 역사가 오롯이 담겨 있다.

협의회의 과거를 되돌아보고 오늘을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의미에서 25년사 책자의 주요 내용을 두 차례에 걸쳐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주>

▲협의회의가 걸어온 길

제주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역사는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1월 26일 창립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주지회(이하 제주지회)가 그 출발점이다. 당시 회원은 단체회원 8명과 개인회원 4명이 고작이었다. 창립총회에서 강도아 제주보육원 원장이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제주지회 탄생 과정에 산과 역할을 한 김정현 제주케어하우스 원장(당시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장)은 ‘협의회 25년사 편찬’ 인터뷰를 통해 “1983년 법정단체로 발족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16개 시·도에 지회 조직을 만들게 됐다”며 “이 과정에 도내 사회복지인들이 뜻을 모아 제주지회를 창립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당시만 해도 제주지역 사회복지법인인 8개에 불과할 정도

로 사회복지 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사실상 황무지였다고 김원장은 설명했다.

제주지회가 창립됐지만 정작 동지를 틀만한 변변한 사무실조차 없었다. 한국어린이재단 제주지부 사무실 한 칸에서 ‘셋방살이’ 신세를 져야 했다. 16.5㎡(5평) 남짓한 사무실에 책상 3개와 전화기 1대가 전부였다.

그 해 9월 5일 제주지회 자원봉사단이 발족했다. 제주지회 제1기 자원봉사자 교육 수료생들이 뜻을 모아 봉사단을 결성한 것이다. 제주지회 자원봉사단은 1991년 ‘작은세상봉사단’으로 명칭을 바꿨으며, 지금도 왕성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991년 2월에는 지역복지봉사센터가 설치됐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 정보센터의 시발점인 셈이다.

그 이듬해인 1992년 8월 제주시로부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

협의회 1986년 1월 창립...자원봉사자 육성 사회복지 교육.조사연구.식품나눔 등 추진

고 있다. 그 해 12월 19일에는 온누리봉사회가 창립됐다.

1998년 2월 저소득층 가구가 밀집한 아라주공아파트단지 내에 아라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사회복지법인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가 설립된 것은 1998년 12월 12일, 5차례의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거쳐 이날 공식 출범한 것이다.

단체회원 21명과 개인회원 50명 등 모두 71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제주지회 강도아 회장이 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2000년 11월엔 협의회 소속 좋은인연봉사회가, 2003년 7월엔 손뜻모아봉사회가 창립됐다.

협의회는 2004년 2월 공역푸드뱅크 운영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현재까지 제주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식품나눔사업을 펼쳐며, 나눔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2005년 1월에는 협의회 제3대 회장에 이동한 사회복지법인 춘강 이사장이 취임했다.

2008년 1월 전국 최초로 협의회 회관을 건립했다. 제주시 화북1동에 사업비 12억여원을 들여 부지면적 2019㎡, 건축연면적 597㎡, 지상 2층 규모로 신축됐다.

이듬해인 2009년 6월엔 상설 매장 형태의 ‘사랑나눔 푸드마켓’이 문을 열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대상으로 식품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협의회 회원 수는 187명, 예산규모는 6억7700만원, 교육인원은 1만337명에 달한다. 지난 25년간 회원 수는 15배, 예산은 52배, 교육인원은 100배 증가했다. 협의회가 운영하는 자원봉사 인증시스템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도 2001년 148명에서 지난해 9만3067명으로 급증했다.

▲어떤 일 했나

협의회가 그동안 추진한 사업은 크게 ▲교육훈련 ▲조사연구 ▲자원봉사자 육성 ▲식품나눔 등 4가지로 구분된다.

협의회는 지난 4반세기 동안 사회복지 종사자와 자원봉사자, 도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펼쳐왔다.

사회복지학교를 비롯해 자원봉사 교육, 사회복지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도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 ‘찾아가는 초등학교 복지교육’ 프로그램을, 2010년부터는 저소득 가정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 ‘찾아가는 원어민 영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 분야 조사연구사업도 활발하게 펼쳐왔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했다.

도내 자원봉사 활동 실태 조사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복지 욕구

조사를 실시해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했다.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별 욕구·의식 조사와 사회복지 지표조사도 실시했다.

자원봉사자 육성사업은 지난 25년간 최대 역점사업 중 하나로 꼽혀왔다.

창립 첫 해인 1986년부터 해마다 자원봉사자 교육을 통해 수많은 자원봉사자를 양성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자원봉사단체가 잇따라 창단됐다.

자원봉사 인증관리도 빼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이 처음으로 도입된 2001년 140여명에 불과했던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지난해 말 현재 9만3000여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0년부터는 ‘제주사회복지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고 있다.

식품나눔사업은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으로 나뉜다.

협의회가 2004년 공역푸드뱅크 운영 기관으로 지정 받은 데 이어 2009년 6월에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개소했다.

식품기부에 동참하는 기부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푸드마켓 이용자는 매월 평균 1500여명에 이른다. 협의회가 제주지역의 식품나눔사업을 선도하고 있는 셈이다.

협의회는 이 밖에 사회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제주사회복지신문’을 매월 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 생명명둑기와 난치병환아 진료비 지원사업, 사회복지도우미 공공근로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특화사업으로는 ‘행복날개 유소년축구단’과 ‘문화나들이’ 사업을 펼치기도 했다.



기획 - '이웃사랑 자원봉사'

(1)김영순 · 원석철씨

본지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봉사 문화를 확산하고자 그늘진 곳에서 소외계층을 도우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참봉사자를 발굴 그들의 활동상을 소개하는 '이웃사랑 자원봉사' 코너를 신설, 기획 연재한다. 그 첫 순서로 '제주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 오른 김영순·원석철씨를 만나 인터뷰했다. <편집자주>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커요”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1호 김영순씨, 25년간 나눔실천

“언제, 어디서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제겐 큰 기쁨입니다.”

내가 아닌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낸 세월만 꼬박 25년. 일일이 셀 수는 없지만 자원봉사활동 시간만 무려 5000시간이 훌쩍 넘는다.

‘자원봉사의 달인’으로 정평이 난 김영순씨(64·여). 사실 그에게 자원봉사활동 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 산술적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원봉사를 통해 얻는 기쁨과 보람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김씨가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건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자원봉사’란 단어가 낯설고 생소했을 때다.

“당시만 해도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남을 위해 봉사한다고 하

면 주위에 서 ‘그렇게 잘 사느냐’, ‘시간이 남아도

느냐’는 등 핀잔을 주곤 했죠. 그래도 한 번 굳게 마음먹은 터라 계속 봉사활동을 했어요.”

도내 자원봉사의 길을 개척한 산증인인 셈이다.

그동안 김씨가 벌인 자원봉사활동은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

때론 어머니를 모시는 딸이 되어 노인들의 몸을 닦아주고 말벗이 되었다. 또 어느 날은 엄마가 되어 장애인과 고아를 돌봤다.

제주양로원을 비롯해 제주요양원, 원광요양원, 애덕의 집, 작은예수의 집, 제주정신요양원, 효사랑, 제주장애인요양원, 한길정보통신학교(옛



제주소년원), 제주시립희망원 등 그의 도움의 손길이 닿은 도내 사회복지시설만 10곳에 이른다.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도 그는 이들 시설을 매월마다 정기적으로 방문,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자원봉사에 대한 남다른 열정 탓에 그의 한 달 스케줄은 예나 지금이나 꽉 들어차 있다.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다.

그가 소속돼 활동 중인 봉사 동아리만 10곳에 달하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여성자원봉사센터 소속으로 요양원 등에서 목욕봉사를 하는 코스모스팀, 옷을 수선해 주는 수선화팀,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원에 치료를 제공하는 꽃사모팀 등 봉사활동 영역도 다양하다.

매월 15일이면 봉선화팀 회원들과 함께 제주양로원,요양원을 찾아 노인들을 위한 생신상을 차려주고 장미팀 회원들과 민요공연을 선보이기도 한

다.

생신상 비용은 회원들과 자비를 털어 마련한다.

그의 이웃사랑 실천은 여기는 그치지 않는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매월마다 제주시 노형동지역의 저소득층 노인 40여명을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초청,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늘 어려운 이웃을 먼저 챙기는 어머니의 한결같은 모습을 곁에서 지켜봐 온 그의 아들과 며느리, 손자도 자연스럽게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온 가족이 자원봉사의 길을 걷고 있는 셈이다.

김씨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20년 넘게 묵묵히 자원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선정하는 ‘제주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제1호 인물로 등재됐다.

“상을 받으려고 봉사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자그마한 것을 이웃과 나눌 때 더욱 뿌듯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힘이 닿는 한 자원봉사활동에 계속 전념하고 싶다는 게 그의 소박한 바람이다.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자원봉사할 터”

자원봉사 명예의 전당 2호 원석철씨, 24년간 봉사헌신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돼 영광스럽기도 하지만 책임감이 더 무겁습니다. 제 기력이 다하는 날까지 봉사활동을 계속 할 겁니다.”

민간봉사단체인 ‘작은세상봉사단’의 주축인 원석철씨(50)는 최근 ‘제주사회복지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그는 24년간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친 공로로 지난달 27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회관에서 열린 ‘사회복지인 신년인사회’에서 자원봉사자 명예의 전당 등재에 따른 기념패를 수상했다.

도내 3만명이 넘는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로는 두 번째로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입성한 것이다.

제주시 도련동에서 펌프카

회사를 운영하는 원씨가 자원봉사에 나서게 된 계기는 이렇다.

“어릴 적부터 지체 장애인인 사촌형과 허물 없이 지냈어요. 사촌형은 조손가정에서 자랐는데 제가 성인이 되면 사촌형처럼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서 살겠다는 생각을 마음속에 새겼어요. 그런 다짐을 20대 들어 실천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본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한 것은 1987년부터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작은세상봉사단에 가입한 후 매달 정기적으로 아가의 집과 제주보육원, 천사보육원, 제주양로원, 성이사돌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장애인과



어르신들의 몸을 씻겨 주고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다.

그렇게 시작한 자원봉사는 중년의 나이 들어서도 계속 이어졌다.

2003년부터는 혼자 사는 노인이나 장애인, 저소득층 가정을 찾아 도배와 집수리를 해주는가 하면 배수구 정비 등 굵은 일도 도맡아 해 왔다.

지난해 여름 장마가 닥쳤을 때 제주시 동문시장 인근에 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한 할머니의 집을 찾아 고장난 보일러를 수리해 주고 바람이 송송 들어오는 곳에 문을 달아줬더니 할머니가 연신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신의 두 손을 꼭 잡아줬던 장면을 그는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봉사에 헌신하다보니 2005년부터 2년간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봉사단체로 구성된 자원봉사연합회 회장을 맡아 봉사단체 간 결속과 화합은 물론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기도 했다.

그는 주중 봉사단체인 ‘좋은인연봉사회’ 창립한 주역이기도 하다.

“10여년 전인 2000년 제주산업정보대학 사회복지과(야간)에 입학하고 나서 같은 과 학생들에게 주중 봉사회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했어요. 봉사단체들이 주로 주말에만 활동하고 주중에는 봉사활동이 뜸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 해 좋은인연봉사회를 창립하게 된 것입니다.”

20년 넘게 자원봉사 현장에서 뛰다보니 그늘진 곳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외롭게 생활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도 적지 않게 목격하게 된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궁핍한 살림에 집세를 어떻게 마련할지 걱정하면서 깊은 한숨을 내 쉴 때는 정말 안타까워요. 나중에 원룸 주택을 지은 뒤 어려운 이웃들이 집세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싶어요.”

그의 또 한 가지 소망은 젊은 세대들이 자원봉사에 많이 참여했으면 하는 것이다.

자신이 세상을 떠나면 ‘자원봉사자’란 단어를 묘비에 새기고 싶다는 그는 오늘날 자원봉사자의 삶을 살고 있다.

